

정근식교수 출판이력

프로필	칼럼	인문	역사·역사	정치	지역	발행처
PROFILE	COLUMN & ESSAY	PROSE & HISTORY RIGHTS	ESSAY / FICTION	GOING	REGIONAL	PUBLISHER
▶ 나의 인생사(1)~(5)						
번호	제목	인원	수량	도판	발행일	
18	『서』역학소리	정근식	4	150	04-15	
17	『서』명산명지교	정근식	4	150	04-15	
16	『서』나눔의 길 이야기	정근식	4	150	04-15	
15	『서』나눔의 길에서	정근식	2	90	04-15	
14	『서』송학동행	정근식	1	45	04-15	
13	『서』백내리의 고향산	정근식	1	25	04-15	
12	『서』서암편의 편어	정근식	1	50	04-15	
11	『서』장흥의 수리성	정근식	1	20	04-15	
10	『서』호기내재의 영취문학	정근식	2	54	04-15	
9	『서』광주2	정근식	2	25	04-15	
8	『서』광주1	정근식	2	26	04-15	
7	『서』꽃가람의 모후	정근식	2	20	04-15	
6	『서』수국과 소성암	정근식	2	8	04-15	
5	『서』연주암의 가을	정근식	2	6	04-15	

▶ chonnam.chonnam.ac.kr/~ksjung



정근식*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저자 정근식을 만나다

이번 도서관문화 6월호에서는 최근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여 주목받았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를 만나, 사회적 기억의 중요성과 기억 보존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전개되는 문화운동과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 편집자 주

Q 우선 이렇게 도서관문화 지면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 출간한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나간채, 정근식, 강창일 외 공저, 역사 비평사, 2004)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머리에 문화운동이 우리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이 책은 5.18을 기억하고 이른바 '광주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전개된 각종 문화운동, 그리고 4.3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던 문화운동을 다룬 책입니다. 이런 주제가 별로 연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를 어떤 시각에서 다룰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Ksjung@snu.ac.kr

Q 문화운동에 대한 연구를 3년 계획으로 진행하시고 있는데,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료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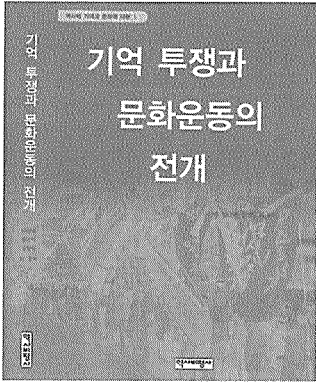
A 이 책은 우선 한국에서의 1980-90년대의 문화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다음에는 문화운동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두 사례의 문화운동을 각 장르별로 비교하여 일반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출간된 책은 1차연도 과제의 결과물인데, 각 사례의 개별 장르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상 등의 5개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기념 의례나 증언, 만화 등도 문화적 재현에 속하는 것이어서 부차적으로 다룹니다. 자료수집은 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각 소주제를 다루는 연구자의 개인적 노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문화운동자료관이나 이 자료들을 별도로 수집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21세기 도서관은 기존의 문자자료 뿐 아니라 이런 여러 비문자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책에 보면 문화운동에 대해 음악, 미술, 문학, 영상, 연극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셨던데요, 도서관과 이 같은 문화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참여학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를 다루고 교육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단위의 도서관은 단지 자료의 수집 보관처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Q 교수님께서 문화도시 만들기를 비롯해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 중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지역사회 연구와 도서관을 연관시켜서 연구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제가 아는 한 교수는 일찍부터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분야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의



전문연구자와 교사, 지역활동가들이 새로운 지역사쓰기 운동, 각종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적 지역활성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사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단위의 문화원과 도서관이 보다 밀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가 겪은 문화적 경험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미래를 담보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연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 지역문화 또는 지역주민들의 기억을 보존·전승하여 이의 문화적 활용에 공헌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A 도서관은 새로운 지역사회쓰기, 새로운 지역문화만들기 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체험에 관한 구술 채록, 영상으로 만들기 등은 지금까지 매우 소홀하게 취급해온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의 주제로 거듭나는 데에는 이런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도 연결됩니다.

Q 바쁘신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 고맙습니다. 